

현대오일뱅크

사보 독자 게시판

2022년 10월호를 보고

‘독자 게시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당월 말까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현대오일뱅크〉 사보에 꾸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기재하신 개인 정보는 선물 발송
후 한 달 안에 폐기됩니다.
기한 2022년 11월 30일



〈현대오일뱅크〉 11월호를 읽고 다음의 퀴즈를 풀어보세요!

이번 호 ‘오일뱅크 스토리’에서는 빙하의 중요성과
함께 다양한 빙하 정보를 다뤘습니다.
빙산, 빙붕, 빙상 중 육지 위에 펼쳐져 있어 녹으면
바다로 유입,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초성 힌트: 바스



박미순 현대오일뱅크 하나주유소

〈오일뱅크 뉴스룸-문화기행〉이 좋았습니다.
개인주유소를 하다보니 시간 내서 국내외 할 것 없이
여행 가기가 쉽지 않는데 기사를 보니 예전에 현대에서
금강산에 갔던 기억도 나고 우리나라 인천에 이런 곳이
있다니 없는 시간도 내서 꼭 가보고 싶네요. 솔직히
어디가 가볼 만한 곳인지 찾기 힘든데 좋은 곳 소개받은
느낌이 들다 보니 저의처럼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좋은 곳 구경할 수 있는 여행 안내서
코너도 있으면 좋겠어요.

강민희 영업본부 직영지원팀 사원

〈오일뱅크 뉴스룸-문화기행〉 기사가 좋았습니다. 모태
인천사람으로서 임직원 문화기행으로 인천을 방문했기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천에 대한 정보여서
반갑기도 했고, 이렇게 예쁜 곳이 있었다니 저도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날씨에
근교로 짧게 여행갈 곳을 찾게 되는데, 어떤 곳을 가야할
지 정보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문화기행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경 현대케미칼 설계팀 사원

〈그린 한 끼〉 “맛 좋고 영양 만점 녹두” 기사가
좋았습니다. 기사를 보고 사택에서 동기와 함께 녹두죽을
해 먹어 봤습니다. 마침 엄마께 전화가 와서 녹두죽을
만들어서 먹은 얘기를 했는데 녹두를 고운체에 거르면 더
부드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사의 ‘엄마의 비밀 팁’에
나온 내용과 동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린 한 끼가 가장
좋았습니다. 녹두죽을 볼 때마다 오늘의 기억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환절기 옷차림에
대한 내용과 같이 일상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혁 라원영 선임매니저 가족

〈블루 아카이브〉 “행복한 노후, 연금과 함께해요” 기사가
가장 좋았습니다. 노후는 먼 미래라 생각하여 아직까지
고민해 보지도 않았고, 추상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글을 통해 연금에 대해 쉽고 명확히 개념을 잡을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트렌드 모의고사〉에서 국내 중고 거래
시장 현황과 이점을 시각화된 자료로 쉽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후속 호에는 중고거래 시장 성장에서 파생된
사회적 트렌드를 다뤄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조용훈 안전생산본부 HOU1팀 계장

〈오일데스크〉 “대기업도 규제 풀고 ‘혁신 모래판’
으로...” 기사를 읽고, 국내 정유사 중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열분해공정(DCU)을 활용하여 페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 나프타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통해 평소 관심
있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녹색사업이 점차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